

한라포커스 반복되는 양식장 고수온 피해

‘액화산소’ 만으론 버틸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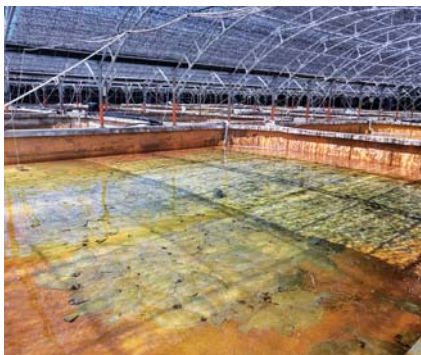
올해 고수온 기간 작년보다 길고 수온 1℃ 상승 우려도, 대응상황실 가동... ‘순환여과식’ 시스템 도입 계획
작년 광어 54억원대 피해... 양식어가, 근본 대책 주문

연일 폭염이 이어지며 제주 연안 수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어 양식장 고수온 피해가 우려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응상황실을 운영하며 액화산소와 면역증강제 지원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양식업계는 매해 땀집식 대책보단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 고수온 특보=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일 해역 수온이 25℃에 도달하거나 이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고수온 예비특보를 발효하고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올해는 작년보다 약 1주일 빠르게 특보가 발효됐으며 도는 고수온 대응상황실을 가동하고 양식장에 액화산소와 면역증강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식현장에선 근심이 가득하다. 지난해에만 광어 221만500마리가 폐사해 54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수온이 최대 1℃ 이상 더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고수온 지속기간 또한 작년 71일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현장 위기감 고조=제주도의 고수온 대책에 대해 현장에서는 당장의 효과를 체감하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귀포시 대포동 소재 한 광어양식장. 사진 아래는 바닷물 유입 수도관. 오소범기자

서귀포시 대포리에서 양식장을 운영 중인 A씨는 “도에서 지원하는 물품도 턱없이 부족해 대부분은 사비로 추가 구매하고 있다”며 “액화산소는 폐사율을 줄일 수는 있어도 생존율을 높이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한 해에만 30t·4억원 상당의 광어를 폐사로 잃었다고도 토로했다.

대포동 지역 양식업자 B씨는 “지금까지 키워온 광어를 다 팔고

고수온 기간 동안 양식장을 비워둘 예정”이라며 “3년 연속 고수온 피해가 이어진다면 사실상 업을 접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 지원 대책=도는 지난해보다 액화산소 및 면역증강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는 입장이지만 도내 모든 양식장에 고수온 전 기간을 감당할 정도의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장기 대응책으로 ‘순환여과식 양식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도는 “기존 유수식 방식은 물을 지속적으로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수온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물의 교체율을 낮춰 수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순환여과식 양식시스템은 올해 말 착공, 2027년 실증을 거쳐 2028년부터 점차 보급 예정으로 현장의 체감까지는 최소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근본 대책 절실=해마다 반복되는 고수온 재난은 도내 양식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액화산소와 면역증강제 등의 지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기 처방에서 벗어나 양식환경의 구조적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현장 맞춤형 수온 저감 기술, 서부지역 염지하수 활용 허용 여부 재검토, 양식 어종 다변화 등 다각도의 대응 전략 마련과 신속한 실현이 요구되고 있다. 오소범기자



여름 한낮의 도로 제주전역에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제주시 연동 한 도로가 뜨겁게 달궈져 지열이 피어오르고 있다. 강희만기자

장마 끝나자 이젠 가뭄 걱정

6월 강수량 평년의 69%
8월 중순이후 가뭄 예상
도, 종합대책 수립·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른 장마 종료로 인한 가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6월

누적 강수량은 145.2mm로 평년(207.2mm) 대비 68.9%에 그쳤다. 제주도는 적은 강수량으로 인해 8월 10일 이후 제주시 지역에 가뭄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도내에서 가뭄 현상을 보이는 곳은 없지만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지역의 토양수분 장력(kPa)이 60을 기록하는 등 조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kPa는 수치가 높을수록 수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하며 101~500kPa까지는 조기가뭄으로, 501kPa 이상은 가뭄으로 분류한다.

제주도는 가뭄과 폭염에 대비해 농업용 관정 지역별 급수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또 공공 관정과 급수탑, 양수기 등 장비를 점검했다.

또 제주도는 가뭄·폭염 대응 농업 분야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무더위 쉼터(201개소)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에게는 폭염 대응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맹독성 노무라입깃해파리 출현... 4면 / 하버드대 아카펠라-표선고 4:3 공연... 8면

생활민원 3건 중 2건은 ‘공사장 소음’

제주시 상반기 접수 민원 674건 중 65%

제주시에 올해 상반기 접수된 생활소음·비산먼지 관련 민원 10건 중 9건 가까이는 공사장과 사업장 민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상반기 공사장과 식당 등에

서 발생하는 생활소음·비산먼지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지도점검을 벌여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40개 업체에 5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

혔다. 조치명령 5건, 개선명령 3건, 경고 8건, 과태료 36건(3320만원)이다. 분야별로는 소음 민원 34건, 비산 먼지 민원이 18건이다.

상반기 접수 민원은 총 674건이다. 이 중 공사장 소음 민원이 438건으로 전체의 65.0%를 차지했다. 이어 사업장 소음 민원 21.8%(147건), 비산먼지 민원 13.2%(89건)로 집계됐다.

지도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8개소(경고처분) ▷비산먼지 억제시설 부적합 5개소(조치명령 및 과태료)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공사장 5개소(소음저감 조치명령)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총 3개조 5명의 전담인력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이 중 2개조 4명(일반직 2, 공무원 1, 기간제 1명)은 전화와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된 생활소음 민원현장을 단속하고,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1명은 특정공사와 비산먼지 신고 공사장을 점검한다.

시는 지난해에는 생활소음 등 1359건의 민원 현장을 지도점검해 총 54개소에 7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알림

제주의 속살
7월 12일 힐링하세요

2025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2차 참가자 모집

일시: 7월 12일(토) 08시~16시

대상: 국내외 관광객 및 제주도민(20세 이상 성인)

모집: 39명 (한라일보 인터넷 선착순)

코스: 영실인구 표고밭~민모루 오름 정상~중문천 지류 숲길~중문천~중문천 배~거린사슴 숲길 상앗성~임도~거린사슴 오름 정상~거린사슴오름 전망대(7.8km)

참가비: 1만5천원 (여행자보험·중식비 등 포함)

입금계좌: 농협 301-0104-3643-81 (예금주: 한라일보사)

문의: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사무국 ☎064)750-2291, 2543

한라일보는 주말을 이용한 힐링 프로그램 ‘2025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를 실시합니다. 유네스코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있는 **제주자연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를 활용한 생태관광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에코투어 프로그램은 제주자연의 속살을 직접 보고 걸으며 일상의 짜든 삶을 위로받고 치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집결지: 제주시 종합운동장 시계탑, 08시 대형버스로 이동

신청기간: 7월 7일(월)~7월 10일(목)

참가접수: 한라일보 인터넷 <http://ecotour.ihalla.com>

2025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산방산용머리해안지질트레일 개최를 축하합니다

(주)삼다기획
Samda Event Rental

SINCE 2015

이사 고대환

제주시 신광로1길 10, 205호
Fax. 050)4245-7160
Mobile. 010-2603-2789
E-mail. samda2789@daum.net

몽골천막, 캐노피천막, 탁자, 행사용의자 임대
행사기획 및 이벤트 진행
무대, 음향기기 설치 및 임대
현수막, 상패, 행사용품, 책자, 홍보물 제작
이동식 화장실, 장애인용 이동식 화장실 렌탈